

상상을 현실로...전국 청소년 광주서 AI 서비스 경연

AI사업단, 'AI 프런티어 챌린지'
아마존·구글·엔비디아·네이버
삼성·KT 등 글로벌 기업들 후원
수행평가 도와주는 AI기술 '대상'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희관에서 지난 29일 열린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프런티어 챌린지 2023'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 지도교사, 수상 학생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에서 청소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구현한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희관에서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프런티어 챌린지 2023'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2개 팀에게 상장과 상금 120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경연 대회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주관했으며,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 Korea), 구글클라우드(Google Cloud), 한국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Korea), 엔비디아 코리아(NVIDIA Korea),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 엔에이치엔 클라우드(NHN Cloud), 케이티 클라우드(KT Cloud), 삼성 SDS, 쌍용정보통신 등 9개의 국내외 인공지능 기업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한 삶'을 주제로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퍼지컬 컴퓨팅 분야 ▲인공지능 응용 분야 등 3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상은 용인한국외대부설고등학교에서 참가한 팀 '다섯고당'이 차지했다. 이 팀은 '수행평가 전용 LLM, ttapr.or'을 주제로 생

성형 AI를 활용해 학생들의 수행평가 등을 돕는 AI 기술을 선보였다.

이어 최우수상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팀 'TCP'가 수상했으며, 'ATC(Auto Traffic Controller) - AI 보안담당자'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보안담당자가 없거나 담당자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대상으

로 보안서비스 관리 AI를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전북과학고 학생들로 구성된 '오리는 과학', 경북소프트웨어고 학생들로 구성된 '나홀로마이스터'가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화봉고 'E클라우드', 부산동고 'Facio', 천안오송고 '메이커스쿨', 대학교학교 '심봤다', 경산과학고 '알고리즘에 몸을 맡겨'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예선 서류심사와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결선에 오른 10개 팀이 한달여 간 인공지능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작품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참가 학생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제 지난 14일에는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 Korea) 회사를 직접 방문해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분야별 멘토링을 받기도 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전국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고 AI 서비스로 개발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AI 경연의 장을 마련하고, AI인재를 적극 양성해 광주의 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활성화는 주축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감사활동 전국 1위 감사원 평가...2년 연속 A등급

광주시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광주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성과 우수 및 절차 준수, 감사결과 공개, 부패행위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시민불편 사항 해소, 감사 사례 전파, 자율적 내부통제 확충, 한전과 감사협력 구축 등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펼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기관의지, 기관역량, 기관실적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평가대상 6개 분야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원 모두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자체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동 1위를,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단독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편의점 외 온라인몰서도 구매 가능

광주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해 판매 온라인몰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CU-GS25·아마트24·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제로페이몰·현대이지웰 등 온라인 쇼핑몰 2개소를 추가 개설하고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월 1만3000원씩 연간 최대 15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16~18세(올해 대상자는 2005년1월1일~2007년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 올해 안에 제공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임예순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광주지역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어렵게 마련한 정책인 만큼 대상 청소년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주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튼튼한 안전 지킴이 광주소방...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전국 1위

소방청 대처 능력 등 훈련 평가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 주관 '2023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 전국 1위(시 단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는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재난현장에서 구급대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선착 구급대의 임무 수행, 현

장 응급의료소 운영, 환자 중증도 분류 등 다수사상자 대처 능력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응 역량이다.

훈련은 지난 15일 북구 오희동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 붕괴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광주 북구와 보건소, 의료기관 등 11개 기관, 48명, 구급차 13대가 참여해 상황별 적합한 재난대응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특히 선착 구급대의 명

확한 임무 수행 및 현장안전 확보, 환자 중증도에 따른 분산 이송, 적극적인 유관기관 자원 동원,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성성훈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이번 성과는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상황처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차량 단속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시에 내년 3월까지 북구 각화동 문화사거리 앞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전국 특·광역시도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밤 9시 사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 도심 내 CC-TV 설치지역은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장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등 9곳이다.

광주시는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단속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해 영업용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차량은 일단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것인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구원

11개소 대기측정소 운영

겨울철 미세먼지 감시 강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감시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감시하기 위해 건국동, 농성동 등에 위치한 11개소의 도시대기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된 자료는 에어코리아(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겨울철에 매주 미세먼지 측정장비 점검을 강화해 측정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각각 150㎍/㎥ 이상,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하며,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주의보 발령시 언론사, 학교 등 2600여개 기관과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발령 상황을 신속히 알려주고 있다. 문자서비스는 광주시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광엽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이를 신속히 알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